

# 대면 진학상담, 도내 전 시군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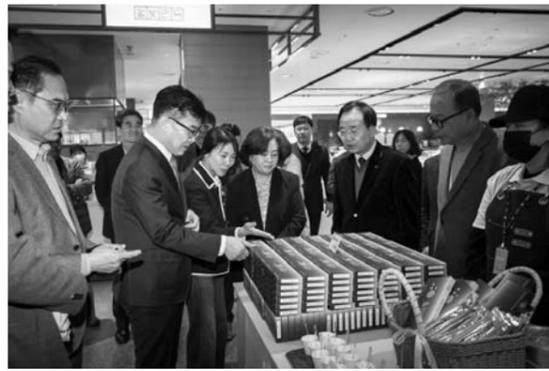
### 전북자치도교육청, 29일부터...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화상 플랫폼 통한 비대면 상담 도내 모든 시군서 2회 이상 입시설명회·전화상담도 지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 대면 진학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청 및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던 것을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 것이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진학상담은 요일별로 분청 진로·진학통합센터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며, 재

학생·졸업생·검정고시생·학부모는 물론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다. 1인당 상담시간은 40분으로 신청 시간 10분 전에 방문, 등록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은 10년 이상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팀 교사가 맡는다. 더불어, 상담실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화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실시한다. 진학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통합센터 누리집(https://www.jbe.go.kr/jinro)에 접속, 원하는 상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상담 신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상담 희망일 1주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2회 이상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즉문즉답 형식의 상담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와 전화상담(1600-1615)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진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플러브스 운영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박진배 총장 등 전주대학교 관계자들이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마련된 남원시 특산물인 백향과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를 둘러보고 있다.

## 남원 '백향과' 팝업스토어 OPEN

###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김상진)는 오는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남원시 특산물인 백향과를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체결한 기술사업화 협약의 일환으로, 남원시 특산물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아침 차게 준비한 첫 제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순택 남원시부시장, 고인배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B1 식품관 '피어나다 남원' 행사장에서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제품과 남원시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아침 차게 준비한 첫 제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의회 개원 1주년

### 의정활동 성과 분석

### 미래교육정책엔 '데이터로

### 보는 전북교육' 3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인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3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3호에는 '학생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의 성과는?'을 주제로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전북학생의회 1년간의 성과를 시각화 자료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북학생의회가 가결한 주요 안건은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 휴학을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정책',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 의회를 두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4개 시군 평균 5.6회 학생의회를 운영했으며, 정읍과 고창은 9번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학생의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 6건, 교원보조 5건, 학생자치 5건, 인공교육 3건, 진로진학교육 3건 등 총 32건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은 전북교육포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임원진들에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 18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802개교 6,876명 학교운영위원과 14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전북학운위는 지난 1년간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안팎의 안전환

교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왔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및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에 헌신해 온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윤호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

회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더불어 청렴한 학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의 동반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28일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8일 치러진다. 이는 지난 3년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치러지지 않다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12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33개교 중 응시를 신청한 103개교에서 희망자에 한 해 치러진다. 한국사 응시희망자 기준으로 1만5,663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희망자 대상 시험임에도 우리 지역 학생만 3월 응시 선택권이 제한됐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시행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장 요구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학기 초 학업능력 진단 및 보충계획 수립 기회 박탈,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저하 우려 등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 공무원 행동강령 담은 홍보 포스터 제작

### 홍보 포스터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 포스터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해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대내외 홍보에 집중해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글로벌 대학 국제적 역할 수행 발판 마련

### 우석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협약 체결... 공정무역기구 기준 맞는 인재 양성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글로벌 대학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대표 지동훈)와 손을 맞잡았다. 12일 우석대에 따르면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조법종 교양대학장, 서용성 사무처장, 곽오열 ESG국가정책연구소장, 이정환 조경학과장, 지동훈 대표, 장자크 그로하(Jean Jacques Grauhar) 공동대표, 김의철 안주권청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방안 모색과 함께 공정무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박노준 총장(사진 왼쪽)과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사진 오른쪽)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부합한 미래인재 양성 협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을 위한 ESG 공정무역 저변확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전개 △글로벌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대학캠퍼스 달성을 위한 교류협력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기업·농업법인·제조기업 등 ESG 공정무역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 △글로벌 공정무역 인증 학교 및

생산자 협동조합과의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박노준 총장은 "국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내재가치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함께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동훈 대표는 "ESG국가정책연구소

설립으로 공정무역에 앞장서는 지역 명문 우석대학교와 교류 협력을 맺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은 원주군에 위치한 기업들이 글로벌 ESG 기업으로 성장하고 ESG 상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원료를 제공하거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무역 확산을 돕는 비영리 국제기구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의대·병원 교수진들 비대위 구성... 향후 대응 의결

### 파트별 20~30여명이 비대위 참여하기로 결정 사직서 제출 일자 등 향후 대응방안 결정될 듯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전북대병원 교수진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 및 전북대병원 교수진 170여명은 12일 오후 5시에 전북대 의대 합동강의실에서 교수 총 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 비대위를 꾸려 정부와 학교 측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각 파트별로 20~3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 등을 결정하면 이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교수진들이 비대위를 꾸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의 집단 이탈 현상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대병원 교수진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자체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만을 전담하는 임상교수들은 98%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 교수진들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생과 전공의들의 휴학 및 사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와 대학본부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뉴스1

## 학교관리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전북자치도교육청, 18~29일 1300여명 대상 연수 AI 미래교육·메타버스 활용 등 교육과정으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18~29일 유치원(공립) 및 초·중·고 원장(감) 및 교장(감), 교육전문직 1,300명을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현장의 수업혁신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AI 미래교육과 ChatGPT활용, 메타버스 및 스마트폰 활용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에듀테크 학교 현안 과제 해결 직무 역

량을 함양하고 교육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래교육연구원에서는 에듀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교정력 교사나 저경력교사 등 초보자를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상시과정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교육연구원은 지난 1월 전북에듀테크리더(JEL) 교사단 320명을 구성, 에듀테크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JEL 교사단을 중심으로 동계직무연수를 운영, 3,222명의 교원이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